

정부·기관 소식



〈고객만족도조사 개요〉

- ◇ 주요정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및 개선점 등을 파악, 향후 정책수립 등에 반영하여 정책의 질적 개선 도모
- 조사기간 : '11. 9. 7. ~ 11. 4.
- 평가대상 : 53개 주요정책과제 (본부 과 및 소속기관별 1개 주요정책과제)
- * 본부(사업부서 위주) : 45개과제 * 소속기관 : 8개과제
- 조사기관 : 리서치 & 리서치 (고객만족도조사 전문기관)
-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의뢰

농림수산식품부

고객만족도가 제일 높은 농식품부 정책은 ?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농지은행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평가지수 높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가 53개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객만족도조사'는 정책수요자, 정책고객, 정책추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주요정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및 개선점 등을 조사·파악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농지은행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 10개 사업이 정책수요자의 피부에 와 닿고 호감 가는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단속 강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및 축산물 등급표시 개선 등으로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 * 원산지 표시 이행률 : ('94) 62.2% → ('00) 94.9% → ('10) 97.7%
- * 음식점 원산지 단속 건수 : ('10.1. ~ 10.) 2,161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5.18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농지과	84.37	농지은행사업 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식량산업과	76.81	농기계임대사업
지도안전과	75.6	불법어업근절 및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
어업교섭과	74.16	주변국간 입어협상 및 민간간 어업자원 협력
녹색미래전략과	74.03	농식품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및 농식품모태펀드 내실화
수출진흥팀	73.26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
4대강새만금과	72.5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방역관리과	72.25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자원화
소비안전정책과	71.97	소비자 교류 활성화 및 식품안전 위험평가 강화

→ ('11.1. ~ 10.) 2,274건

- * 축산물 등급표시 개선 :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서 소·돼지고기 등급표시등급 전체를 열거하고 해당 등급에 “O” 표시
- 등급표시 : (기존) 1등급 → (개선) 1++, 1+, ①, 2, 3등급

‘농지은행 사업(경영희생 농지매입사업)’은 소규모 농가 등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개선 및 예산지원을 확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 * 지원대상 농가 부채기준 완화 : 4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 적격 대상자 선정·지원 확대 : ('09) 1,700억원 → ('10) 2,400억원
- *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까지 매입 확대 등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 및 농작업 대형 확대, 농기계 임대·은행사업간 통합모델 발굴 추진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영농효율화를 도모해 나간 것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조사

- * 임대 농기계 작업일수 : ('07) 5.9일/대당 → ('08) 6.2일/대당 → ('10) 7일/대당
 - *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액(누계) : ('07) 338억원 → ('08) 889억원 → ('10) 2,429억원
 - * 발농사 기계화율(%) : ('99) 44% → ('10) 50%
- 기타, 불법 어업근절 및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 농식품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수출 활성화, 새만금 간척 사업, 가족분노 자원화, 소비자 교류 활성화 및 식품안전 위험평가 강화 등도 고객만족도조사에서 평가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는 금번 주요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및 계획수립 등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정책들이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년도 미국·캐나다에 한국산 토마토·포도 수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우리나라산 토마토의 대미 수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산부터 미국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산 토마토의 미국 수출을 위해 미국 식물검역 당국과의 기술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고, 지난 10.12일 미국 측에서 한국산 토마토의 수입을 허용하는 최종규정을 공고('11.11.14일 시행)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1)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내에서 재배하여야 하고, 2) 미국 측이 우려하는 호박과실파리 등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3)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금년 말까지 재배시설 등록

등 국내 절차를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내년 5월경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번 우리나라산 토마토의 대미 수출 타결은 그동안 일본으로 치우친 토마토 수출시장을 북미지역으로 확대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캐나다와의 국산 포도 수출검역협상을 타결시키고 수출검역요건을 지난 8월 고시하여 내년부터 국산 포도의 캐나다 수출이 가능해졌다.

- 캐나다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1)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2) 착과기부터 봉지를 씌워서 재배해야 하며 3) 우리나라 검역관의 재배지 검사 및 수출검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 아울러,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현재 호주, 뉴질랜드와 국산 포도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산부터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국산 농산물의 신규 시장 개척은 물론 이미 수출협상이 타결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요건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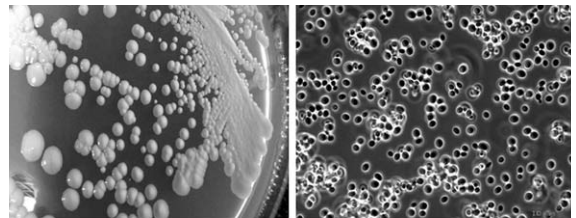
- 국산 감귤 필리핀 수출의 걸림돌이 되었던 필리핀 검역관에 의한 현지검역 요건을 철폐함으로써 금년산 감귤의 실질적인 수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감귤 과실을 비닐백으로 포장하도록 하는 요건도 삭제하여 비닐백 포장을 위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대만 수출용 배에 대하여는 선과장에 배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하도록 한 요건을 철폐함으로써 수확 후 배봉지를 벗겨 저장하다가 이듬해 선과하여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신규 시장 개척은 물론 이미 수출이 타결된 품목에 대한 수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앞장 서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가축 몸무게 늘리고, 분뇨냄새 줄이고 농진청, 효모균 이용 친환경 생균제·악취감소제 개발



농촌진흥청은 가축의 몸무게를 늘려주고 분뇨 악취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개발해 친환경 생균제와 악취감소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분리한 피치아(Pichia)속 효모균의 일종으로 가축의 성장 향상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 제거에 효과가 뛰어나다.

생균제는 이 효모균을 배양해 만든 것으로, 사료와 함께 섞어 가축에게 먹이면 가축의 몸무게 향상은 물론 장내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해 소화율을 향상시키고 소화기 질병을 막아준다. 또한 악취감소제는 이 효모균 배양액에 솔잎 분말과 대나무잎 분말을 혼합해 제조한 것으로 분뇨 등 축산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가스를 감소시킨다.

실제 돼지를 대상으로 생균제를 사료에 혼합해 먹이고 악취감소제를 축산폐기물에 처리한 결과, 돼지의 체중이 7.4% 증가했으며, 축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 중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가스를 9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생균제와 악취감소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팀 유재홍 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제는 축산에 필요한 항생제 대체물질로써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축산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축 ‘호흡기질병’ 주의보

환절기 가축질병 예방관리 당부

요즘처럼 기온 변화와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는 가축에서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관리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초유를 충분히 먹지 못했거나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는 허약한 송아지, 장거리 이동, 축사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자라는 개체들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소에서 호흡기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증,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폐렴 등의 바이러스와 파스튜레라성폐렴, 헤모필루스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성폐렴 등의 세균이 있다. 이들의 병원체는 단독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것보다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흡기질병의 병원체는 발병한 소의 비즙, 눈물, 분변, 뇨 등의 배설물을 통해 같은 축사에 있는 다른 소에게 전파될 수 있다.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혼합백신(전염성비기관염, 바이러스성소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폐렴)을 어미 소에게 매년 2회 접종해야 하며, 송아지가 태어난 후 초유를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먹게 해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줘야 한다. 송아지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송 전에 항생제를 주사한 후 수송하고, 수송 후 안정이 되면 파스튜레라성폐렴 백신을 접종한다.

축사 내에는 정기적인 청소와 환기로 암모니아가스, 먼지, 습기 등이 없도록 하며, 일교차가 심할 경우 보온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흡기 질병이 장기간 지속되면 폐 조직이 손상을 입어 회복이 되더라도 추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질병에 감염된 소는 감염된 병원체에 따라 증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열(40~42℃)을 나타내면서 원기가 없고 식욕이 떨어진다. 콧등이 건조해지고, 초기에는 투명한 콧물이 나오다가 증상이 진행되면서 농이 섞인 점액성 콧물이 흐르며,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고, 눈은 충혈 되고 많은 눈물을 흘린다. 임신된 소는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바이러스소 설사

병에 감염된 소는 구강 주변에 궤양과 침흘림이 구제역과 유사하므로 감별진단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 농식품, 중국 수출길 확대 aT, 대형유통업체 LOTUS와 MOU 체결 및 상하이식품박람회 참가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11월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형유통업체 LOTUS와 한국식품 입점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LOTUS는 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상하이 23개 매장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7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MOU 체결이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앞으로 중국 진출이 유망한 한국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LOTUS 매장에 유통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6일부터 18일까지 72개국 1,012업체가 참가하는 중국 내 최대 규모 바이어 전문박람회인 상하이식품박람회에 aT는 대상, CJ, 풀무원, 사조해표 등 31개 업체가 참가하는 한국관을 개설해 버섯류, 인삼류, 소스류, 차류, 냉동식품 등 유망품목을 전시·상담한다. 막걸리와 버섯을 주제로 한 테마관을 설치해 막걸리와 버섯 요리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특별초청한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출 상담회도 개최한다.

김재수 aT 사장은 “중국은 우리 농식품 수출대상국 중 2번째로 규모가 크고 2012년 수출 100억불 달성의 교두보가 될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대형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지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이 현지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HACCP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농·축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 원장 석희진)은 11월24일 광주광역시 소재 금수장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농·축협 조합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지역 HACCP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축산물HACCP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광주·전남 축협 협의회 회장인 영광축협 구희우 조합장을 비롯하여 광주·전남지역 농·축협 조합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축산물HACCP 활성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석희진 원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HACCP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며 조합장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어 “광주·전남지역의 HACCP 적용 업소(농장)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본원과 호남지원이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HACCP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증진되었으며 향후 HACCP업무 추진시 실질적인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축산물HACCP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준원과의 업무 유대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료채취 중 부상 직원 위로 방문 및 성금 전달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던 중 수소에 받쳐 장시간 수술을 받은 김원일 방역사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방역본부 임·직원들의 위로 방문과 성금 전달이 이뤄지고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방역본부 배상호 본부장과 조우영 충북도본부장은 지난 11월 11일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건국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충북도본부 김원일(40세)씨를 직접 방문하고,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면서 “우리본부 전 임·직원들은 하루빨리 건강이 완쾌되길 바라고 있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이정산 방역과장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묻고 연구소 직원들이 모금한 위로금을 전달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원일씨는 “주위의 많은 관심 덕분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원일씨는 '04년 6월 입사하여 7년여 동안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하여 주어진 임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주변 동료와 상사로부터 매우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 받아왔다.

